

인천시 노인의 생활특성과 관련요인 분석

The Living Conditions and their Determinants of the Elderly in Incheon

인천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교수 이강자

교수 최재순

부교수 강이주

부교수 장영애

조교수 성영애

University of Incheon, Dept. of Home Management

Prof. : Kang-Ja Lee

Prof. : Jae-Soon Choi

Associate Prof. : Lee-Ju Kang

Associate Prof. : Young-Ae Jang

Assistant Prof. : Young-Ae Sung

● 목 차 ●

I. 서론

II. 국내연구의 동향

III. 연구방법 및 절차

IV. 연구결과 및 해석

V. 요약 및 논의

참고문헌

<Abstract>

The purposes of the study were to investigate selected living conditions of the elderly in Incheon and to examine if they can be disaggregated according to their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in terms of living conditions. Four living areas were examined in the study : health and food habit, housing, economic status, and family relationships. Data were collected by questionnaires. The sample consisted of 202 elderly. It was found in general that the living conditions were relatively poor for the elderly who were female, older and less educated, and had higher household income and no spouse.

I. 서론

1. 문제의 제기

현재 전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가장 특징적인 사회현상중의 하나는 노인인구의 증가와 이에 따른

노인 또는 노후에 대한 관심의 급증이다. 노인인구는 절대수에 있어서의 증가현상을 보여 주고 있음과 동시에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있어서도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60세이상의 노인이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70년에는 5.4%였던 것이 1980년에는 6.1%, 1990년

에는 7.4%를 기록함으로써 지속적인 증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증가추세는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인구예측자료에 의하면 2000년에 노인인구의 비율은 10.2%에 이를 것이며, 2021년에는 18.5%에 이를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고철기 등, 1992).

이러한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노년기에 보내게 되는 생활의 모습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개인적으로는 노후생활의 안정과 행복을 위해서, 국가적으로는 국민생활의 질적인 향상의 모색의 일환으로서 노인인구에 대한 생활복지정책의 수립과 실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러한 노인정책의 수립 및 실행에 있어 기본적인 자료는 현재 노인들의 생활상에서 얻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노인들간에 보여지는 생활특성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현상은, 노인가계내에도 그들이 갖는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생활특성에 상당한 격차가 있을 것을 시사하는 것이며, 이러한 다양성이 존재한다면 노인에 대한 정책은 그들이 갖는 사회인구학적인 다양성에 근거를 두고 이루어져야 할 것임을 암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노인의 생활특성은 각 지역의 사회경제적인 여건에 따라 큰 영향을 받게 되므로(이가옥 등, 1994) 지역실정에 맞는 실질적인 자료는 각 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수집된 것이어야 한다.

한편 생활이란 단일영역으로 파악될 수 없는 복합적인 개념이라고 할 때, 생활의 다양한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방법을 취함으로써 더욱 잘 파악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는 주로 생활의 한두 분야에 연구의 초점을 두고 실시되는 경향이었으며, 지역적으로 볼 때 인천지역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된 연구는 매우 드물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천지역 노인을 대상으로 그들의 생활특성을 건강 및 식생활, 주생활, 경제생활 및 가족관계 특성으로 나누어 종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인천지역 노인의 생활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봄으로써, 이들을 위한 정책수립 및 실행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인천시의 노인복지사업

인천시에서는 보건복지국 산하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계에서 다음과 같은 노인복지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첫째, 노인시설을 건립, 지원하고 있다. 노인시설이란 양로원, 요양원, 설비요양, 치매요양을 위한 노인수용시설과 노인복지회관, 경로당, 노인교실 등의 노인이용시설을 말한다. 현재 노인수용시설에 대한 지원은 크지 않으나 노인이용시설에 대한 지원은 큰 편이다. 둘째, 노인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1997년 현재 거택, 자활보호노인 9,634명에게 80세 이상인 경우 월 5만원씩, 65세 이상인 경우 월 3만 5천원의 노령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생활보호 및 저소득 노인 1만 200명에게 1구좌 5천원씩의 결연사업을 맺어주고 있고, 월 8만원, 년 35만원의 연료비를 경로당 운영비로 지급하고 있다. 셋째, 노인건강관리를 위한 사업으로서 노인전용게이트볼장을 설치하고, 무료 이·미용 봉사단을 운영하며, 경로당에 헬스기구를 설치해주고 있다. 넷째, 노인의 사회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노인 취업창구를 설치하여 1997년 1,200명의 취업을 알선해 주었다. 또한 많은 경로당에서는 방학교실을 운영하여 초중고생에게 한문 및 예절교육을 시키도록 하여 노인의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노인자원봉사대를 운영하기도 한다(인천광역시, 1997).

인천의 21세기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하여 결성된 인천시 제21추진협의회 복지분과에서는 "함께하는 사회, 어느 누구도 소외됨이 없이 진정한 사랑으로 공동체를 이루는 인천"이라는 비전을 내걸고 인천시의 복지문제중 노인복지문제를 중요한 문제로 규정하고 있다(인천의 제21추진협의회 복지분과, 1997).

이렇듯 인천시에서는 노인문제를 중요한 문제로 보아 비교적 많은 지원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가계의 경제적인 측면을 반영한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특별사업을 제외하고, 많은 사업비를 지출하고 있는 일반노인을 위한 복지사업을 수행하면서 노인의 사회경제적인 특성을 반영하는 프로그램은 실시하지

않고 있다.

II. 국내연구의 동향

최근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노인의 생활환경에 관한 연구가 국내외에서 많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여 볼 수 있다. 하나는 생활을 구성하는 각 영역에 대한 개별적인 접근법을 취하는 연구군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노인의 특정생활영역에 초점을 맞추어 노인의 생활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예를 들면, 이현옥 등(1986), 강남이(1986), 김혜경·윤진숙(1989), 허영혜(1989), 조영숙·임현숙(1991), 이윤희·이건순(1995) 등은 노인의 식생활에 대한 연구를 행하였다. 허병이(1991), 상형중(1992), 장재호(1992), 천진희(1992) 등은 노인의 주거환경에 관심을 가졌으며, 고철기 등(1992), 서정희·민현선(1992), 이경희(1993), 이민표·박명희(1994), 문숙재 등(1996)은 노인의 경제생활 상태에 관한 연구를 행하였다. 또한 배경미(1988), 서병숙(1988), 장선주(1989), 송대현·윤가현(1989), 강주령(1990), 최정혜(1992) 등은 노인의 가족관계에 초점을 두고 노인의 생활을 살펴보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각각의 영역을 전문적인 시각에서, 매우 구체적으로 다룸으로써 관련이론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기도 하며 실질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준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생활의 영역을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접근함으로써 생활의 유기적인 측면을 간과하는 단점을 갖기도 한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또다른 연구들은 동일한 노인을 대상으로 동일시기에 전반적인 생활영역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을 시도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포괄적인 성격으로 인해 피상적인 결과를 제시할 수 있다는 단점을 갖기는 하지만, 그러한 포괄성으로 인해 노인에 대한 통합적인 정책을 어떻게 펼 것인가에 대한 관점을 채택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접근법을 취한 대표적인 연구에는 이가옥 등(1994)이 있다. 이 연구는 효과적인 노인복지정책은 현실에 근거하여 수립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전국의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의 가

족관계, 경제, 건강, 주거, 여가활동상황, 노인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인지도, 노인의 생활만족도 등 다양한 생활영역에 대한 분석을 행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법은 장상희·조정문(1985)과 황준호(1990)에 의해서도 취해지고 있다. 이들 연구는 전자의 경우 부산시 노인을 대상으로, 후자의 경우는 대전시 노인들을 대상으로 생활실태를 조사, 분석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실태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최근에는 노인단독가구의 증가에 따라 노인가구 중 단독가구에 초점을 두고 이들의 생활실태에 관심을 기울이는 연구들에 나오고 있다. 박경관 등(1995)은 단독가구 여자노인의 생활의 질향상을 위한 조건을 규명하기 위하여 부산시, 서울시 노인 221명을 대상으로 가족생활실태 및 욕구, 소비생활실태 및 욕구, 주거생활실태 및 욕구를 조사하였다. 심영 등(1996)과 조명희 등(1997)은 충청북도에서 단독가구를 구성하고 있는 노인 285명을 대상으로 경제환경, 주거환경, 사회적 관계 및 가사노동 실태를 연구하였다.

이상의 연구들이 본 연구에 주는 시사점은 노인의 생활은 다양한 측면을 포함하며, 이러한 생활특성은 사회인구학적인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며, 또한 주거지역을 포함한 사회적인 여건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천지역 노인에 초점을 맞추어 그들의 생활을 통합적으로 접근하여 이러한 생활특성이 사회인구학적인 변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생활 특성을 건강과 식생활, 주생활, 경제생활, 가족관계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 보았다. 따라서 본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4개의 연구문제를 갖는다.

〈연구문제 1〉 인천지역 노인의 건강 및 식생활특

성은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문제 2〉 인천지역 노인의 주생활특성은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문제 3〉 인천지역 노인의 경제생활특성은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문제 4〉 인천지역 노인의 가족관계특성은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가?

이때 사회인구학적 변인에는 성별, 배우자 유무, 연령, 교육수준, 가계소득수준 및 동거형태를 포함한다. 여기에서 동거형태란 노인이 본인 또는 배우자와 거주하는 단독가구와 노인부부이외의 가족원과 같이 거주하는 비단독가구로 나누어 본다.

2. 자료의 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는 질문지를 이용하여 수집하였다. 질문지는 국내관련 연구를 바탕으로 노인의 건강과 식생활, 주생활, 경제생활 및 가족관계에 관한 문항

과 노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조사하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포함된 문항은 〈표 1〉과 같다.

조사대상은 인천지역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이다. 60세 이상을 노인으로 보게된 근거는 노인 자신들이 많은 경우 60세를 노년기의 시작연령으로 보는 경향이 크며(한국갤럽조사연구소, 1984, 김에런 1989에서 재인용), 경제활동인구 관련 통계를 추정할 때 60세 이상을 노년으로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본연구를 위해서 1996년 6월 21일부터 30일까지의 예비조사를 통하여 질문지에 대한 수정작업을 거친 후, 훈련된 면접원에 의해 1996년 7월 26일부터 8월 15일 까지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인천광역시의 8개구의 노인을 각각 25-27명씩 추출하여 총 202명의 노인을 면접조사하였다. 이때 사회인구학적인 변인, 특히 노인단독가구와 비단독가구, 여성과 남성 노인, 연령에 따른 비교를 할 수 있도록 이러한 특성을 갖는 노인이 골고루 추출될 수 있도록 편의표집방법을 사용하였다.

조사된 자료는 SPSS/PC+를 이용하여 분석되었으며, 분석방법으로는 연구문제에 따라 빈도, 백분

〈표 1〉 노인의 생활특성 파악을 위한 문항 및 측정방법

생활특성	문항	측정방법
건강 및 식생활특성	주관적 건강상태 거동불편여부 건강유지방법 식사여부 음식섭취정도	3점 Likert(건강함=3) 3점 Likert(편함=3) 선택형 선택형 5점 Likert(섭취=3)
주생활특성	주택형태 주택소유여부 노인전용방 소유여부 노인방 상태	선택형 선택형 선택형 5점 Likert(좋음=3)
경제생활특성	취업여부 가계소득 규모 및 원천 개인용돈액 및 출처 지출대비 소득만족도	선택형 (원) 및 선택형 (원) 및 선택형 3점 Likert(만족함=3)
가족관계특성	부부관계특성 성인자녀관계특성 손자녀관계특성	5점 Likert(높음=5) 5점 Likert(높음=5) 5점 Likert(높음=5)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202)

변인	항목	N(%)
성별	여성	108(53.5)
	남성	94(46.5)
배우자 유무	유	94(46.5)
	무	108(53.5)
연령	60세-69세	87(43.1)
	70세 이상	115(56.9)
교육 수준	고졸이상	31(15.3)
	중졸	31(15.3)
	국졸이하	140(69.3)
가계소득수준	상(201만원이상)	36(22.1)
	중(100-200이하)	50(30.7)
	하(100만원이하)	77(47.2)
동거 형태	단독가구	68(33.7)
	비단독가구	134(66.3)

율, 평균, χ^2 검증, t검증, 일원분산분석 및 Duncan의 다중범위 검정법을 적용하였다.

3.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표 2〉에서 요약하였다. 총 분석대상 노인은 202명으로서, 이 중 53.5%가 여성이었으며, 배우자가 없는 노인의 비율이 53.5%로서 그렇지 않은 노인과의 비슷한 비율을 차지하였다. 70세 이상의 노인이 56.9%를 차지하였고, 교육수준은 국졸이하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가계소득수준도 100만원 이하인 노인의 비율이 47.2%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단독가구를 형성하여 거주하고 있는 노인의 비율은 33.7%였다. 이는 이가옥 등(1994)에서 나타난 전국 노인단독가구의 비율인 38.5%보다는 다소 작은 편이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노인의 건강 및 식생활특성

〈표 3〉와 〈표 4〉에서는 인천지역 노인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그들의 건강상태, 건강유지방법

및 식습관이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을 위주로 결과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여성노인과 남성노인 노인들이 하여금 자신에 대한 건강상태에 대해 주관적인 평가를 내리도록 한 결과 여성노인과 남성노인간의 차이가 발견되었다. 여성보다는 남성노인의 경우 자신을 더욱 건강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경향을 보여 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서울시와 인천시의 노인을 각각 조사한 이현옥 등(1986)과 허영혜(1989)와도 일치되는 결과이다. 또한 거동의 불편한 정도에 있어서도 여성과 남성노인간의 차이가 나타나서 남성노인보다는 여성노인의 경우 거동의 불편함을 더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건강유지방법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식사나 수면과 음식조절 및 정기검진 등의 방법에 있어서는 남녀의 차이가 보여지고 있지 않으나, 약이나 보약, 영양제를 섭취하는데 있어서는 여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 운동을 통한 건강의 유지는 남성의 경우 그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어 여성노인은 건강유지방법으로 약물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성과 남성노인은 생선이나 과일, 야채, 우유 및 유제품의 섭취정도에 있어서는 남녀노인간의 차이는 없었으나, 육류 및 가공육의 섭취에 있어서는 남성노인이 여성노인보다 섭취빈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전통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남성위주의 식사준비 현상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 아침, 점심, 저녁의 식사여부에 있어서 성별에 따른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배우자가 있는 노인과 없는 노인 배우자 유무에 따라 거동불편여부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 거동이 더 불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배우자가 없는 노인의 높은 연령 때문이 것으로 해석가능하다. 성별과 마찬가지로 배우자가 없는 노인은 거동이 더욱 불편함과 동시에 배우자가 있는 노인 보다 운동을 함으로써 건강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들의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일 수도 있으나 운동을 같이

〈표 3〉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노인의 건강 상태 및 건강 유지 방법

변인	항목	주관적 건강상태	거동 불편 여부	건강 유지 방법(특정행동비율%)					
				약/보약/ 영양제	충분한 수면	규칙적인 식사	음식 조절	정기 건강검진	운동
성별	여성	1.59	2.63	69.4	68.5	76.9	27.8	24.1	34.3
	남성	2.19	2.79	53.2	79.8	79.8	30.9	29.8	60.6
	차이검증	t=-4.68***	t=-2.29*	$\chi^2=5.63^*$	$\chi^2=3.30$	$\chi^2=.25$	$\chi^2=.23$	$\chi^2=.84$	$\chi^2=14.06^{***}$
배우자 유무	유	1.98	2.78	60.6	75.5	77.7	31.9	29.8	54.3
	무	1.78	2.64	63.0	72.2	78.7	26.9	24.1	39.8
	차이검증	t=1.51	t=1.98*	$\chi^2=.12$	$\chi^2=.28$	$\chi^2=.03$	$\chi^2=.62$	$\chi^2=.84$	$\chi^2=4.21^*$
연령	60세-69세	1.81	2.80	63.2	69.0	73.6	32.2	34.5	57.5
	70세이상	1.95	2.63	60.9	77.4	81.7	27.0	20.9	38.6
	차이검증	t=-1.08	t=2.51*	$\chi^2=.12$	$\chi^2=1.82$	$\chi^2=1.94$	$\chi^2=.65$	$\chi^2=4.69^*$	$\chi^2=7.35^{**}$
교육수준	고졸이상	2.00	2.74	61.3	80.6	80.6	35.5	45.2	71.0
	중졸	1.97	2.65	58.1	87.1	74.2	29.0	35.5	58.1
	국졸이하	1.82	2.71	62.9	69.3	78.6	27.9	20.7	38.6
	차이검증	F=.64	F=.35	$\chi^2=.25$	$\chi^2=5.57$	$\chi^2=.41$	$\chi^2=.71$	$\chi^2=9.18^*$	$\chi^2=12.66^{**}$
가계 소득수준	상(201만원이상)	1.97	2.69	69.4	77.8	91.9	33.3	41.7	52.8
	중(100-200이하)	2.08	2.86	56.0	74.0	66.8	36.0	22.0	50.0
	하(100만원이하)	1.86	2.73	59.7	72.7	79.2	32.5	28.6	41.6
	차이검증	F=.85	F=1.94	$\chi^2=1.65$	$\chi^2=.33$	$\chi^2=8.16^*$	$\chi^2=.17$	$\chi^2=3.95$	$\chi^2=1.57$
동거형태	단독가구	2.00	2.65	52.9	79.4	79.4	29.1	26.5	44.1
	비단독가구	1.81	2.66	66.4	70.9	77.6	29.4	26.9	47.8
	차이검증	t=1.38	t=-.11	$\chi^2=3.47$	$\chi^2=1.69$	$\chi^2=.09$	$\chi^2=.00$	$\chi^2=.95$	$\chi^2=.24$

* p<.05 ** p<.01 ***p<.001에서 유의미

할 수 있는 동료가 없어서 일 수도 있다.

배우자가 없는 노인의 경우 배우자가 있는 노인보다 아침식사를 거르는 노인이 더 많았으며 육류 및 가금류의 섭취빈도도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배우자가 없는 노인의 경우 여성의 비율이 높은 것을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고, 배우자가 있음으로서 육류섭취에 더욱 신경을 쓰는 경향을 반영하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배우자가 있는 노인이 배우자가 없는 노인보다 영양지식인 더 높다는 것(이윤희·이건순, 1995)을 반영한 것일 수도 있다.

후기노인과 초기노인 노인의 연령이 높은 경우 거동이 더 불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노화현상에 따른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주관적인 건강상태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연령의 차이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건강유지방법에 있어서 정기건강검진과 운동의 경우 연령에 따른 차이가

보여지고 있는데 초기노인의 경우 운동을 더 많이 하고 정기검진도 더 자주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두 집단 모두 충분한 수면과 규칙적인 식사를 건강유지방법으로서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하고 있었다.

교육수준이 높은 노인과 낮은 노인 노인의 교육수준에 따라서 주관적 건강상태나 거동불편여부는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정기건강검진이나 운동을 건강유지방법으로 이용하고 있는 비율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여주었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정기건강검진을 더 받고 운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의 방법의 이용에는 큰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노인의 식습관은 다른 사회인구학적 변인보다도 교육수준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사여부를 조사한 결과 점심과 저녁식사의 경

〈표 4〉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노인의 식습관

변인	항목	식사여부(%)			음식섭취정도				
		아침	점심	저녁	육류 및 가금류	생선 및 조개류	과일	야채	우유 및 유제품
성별	여성	90.7	95.4	99.1	2.81	2.94	3.74	4.54	2.88
	남성	96.8	98.9	98.9	3.33	3.20	3.71	4.66	2.80
	차이검증	$\chi^2=3.07$	$\chi^2=2.22$	$\chi^2=.01$	t=-4.06***	t=-1.75	t=.17	t=-1.15	t=.38
배우자 유무	유	97.9	96.8	98.9	3.22	3.15	3.76	4.63	2.90
	무	89.8	97.2	99.1	2.90	2.99	3.70	4.56	2.79
	차이검증	$\chi^2=5.42^*$	$\chi^2=.03$	$\chi^2=.01$	t=2.46*	t=1.07	t=.32	t=.59	t=.54
연령	60세-69세	93.1	96.6	100	2.97	3.20	3.85	4.59	2.89
	70세이상	93.9	97.4	98.3	3.11	2.97	3.63	4.59	2.81
	차이검증	$\chi^2=.05$	$\chi^2=.12$	$\chi^2=1.53$	t=-1.09	t=1.55	t=1.32	t=.06	t=.35
교육수준	고졸이상	100	100	100	3.55b	3.58b	4.16b	4.77	3.71b
	중졸 국졸이하	100 90.7	96.8 96.4	96.8 99.3	3.16ab 2.91a	3.26ab 3.91a	3.97ab 3.58a	4.48 4.58	3.19b 2.57a
	차이검증	$\chi^2=6.15^*$	$\chi^2=1.13$	$\chi^2=2.00$	F=6.21**	F=6.19**	F=4.15*	F=1.24	F=8.51***
가계 소득수준	상(201만원이상)	91.7	100	100	3.33	3.56b	4.06	4.64	3.11
	중(100-200이하) 하(100만원이하)	96.0 96.1	100 93.5	100 97.4	2.98 3.04	3.22b 2.83a	3.86 3.66	4.74 4.57	3.06 2.75
	차이검증	$\chi^2=1.16$	$\chi^2=5.76$	$\chi^2=2.26$	F=1.78	F=6.69**	F=1.60	F=.85	F=.94
동거형태	단독가구	95.6	98.5	98.5	3.10	2.96	3.62	4.46	2.68
	비단독가구	92.5	96.3	99.3	3.02	3.11	3.78	4.66	2.93
	차이검증	$\chi^2=.70$	$\chi^2=.80$	$\chi^2=.24$	t=.57	t=-1.05	t=-.96	t=-1.83	t=1.09

* p<.05 ** p<.01 ***p<.001에서 유의미

우 차이가 없었으나 교육수준이 낮은 노인의 경우 아침을 거르는 비율이 높았다. 음식섭취정도를 보면 육류 및 가금류, 우유 및 유제품의 경우 교육수준이 높은 노인의 섭취빈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생선 및 조개류의 경우는 교육수준이 낮은 노인의 경우 섭취수준이 더 높았다.

소득수준이 높은 노인과 낮은 노인 노인이 속해있는 가계의 소득수준에 따른 건강특성의 차이는 건강유지방법의 규칙적인 식사이용도에서만 보여지고 있다. 소득수준이 높은 노인의 경우 규칙적인 식사를 더욱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득에 따라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측되었던 정기건강검진이나 보약섭취 등에 있어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가계의 소득수준은 생선 및 조개류의 섭취수준에 차이를 보여 가계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생선 및 조개류의 섭취수준이 높았다. 가계소

득은 그밖의 음식물 섭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독가구 노인과 비단독가구 노인 최근 증가하고 있는 단독가구의 증가에 따라 단독가구와 비단독가구간의 건강 및 식생활특성이 차이가 있는가를 조사하였으나, 노인의 동거형태에 따른 건강과 식생활 특성의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2. 노인의 주생활특성

〈표 5〉와 〈표 6〉에서는 인천지역 노인의 사회적 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형태, 주택소유여부 및 노인방의 보유상태 및 특성에 있어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여성노인과 남성노인 주택유형과 주택소유여부에 있어 여성노인과 남성노인간의 차이는 발견되지 않

〈표 5〉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주택형태, 소유여부 및 노인방 소유여부

변인	항목	주택 형태			주택소유	노인전용방
		아파트	단독	기타	여부	소유여부
성별	여성	47.2	36.1	16.7	86.1	86.1
	남성	46.8	27.7	25.5	80.9	98.9
	차이검증		$\chi^2=3.01$		$\chi^2=1.02$	$\chi^2=11.33^{***}$
배우자 유무	유	43.6	36.2	20.2	85.1	98.9
	무	50.0	28.7	21.3	82.4	86.1
	차이검증		$\chi^2=1.33$		$\chi^2=.27$	$\chi^2=11.33^{***}$
연령	60세-69세	32.2	42.5	25.3	82.8	98.9
	70세이상	58.5	24.3	17.4	84.3	87.0
	차이검증		$\chi^2=13.73^{**}$		$\chi^2=.09$	$\chi^2=9.61^*$
교육수준	고졸이상	64.5	22.6	12.9	83.9	100.0
	중졸	48.4	29.0	22.6	83.9	96.8
	국졸이하	42.9	35.0	22.1	83.6	89.3
	차이검증		$\chi^2=4.97$		$\chi^2=.00$	$\chi^2=5.10$
가계 소득수준	상(201만원 이상)	44.4	44.4	11.1	100	97.2
	중(100-200이하)	44.0	26.0	30.0	94.0	82.0
	하(100만원이하)	32.5	42.9	24.7	70.1	97.4
	차이검증		$\chi^2=7.52$		$\chi^2=21.65^{***}$	$\chi^2=11.97^{**}$
동거형태	단독가구	38.2	35.3	26.5	66.2	100.0
	비단독가구	51.5	30.6	17.9	92.5	88.1
	차이검증		$\chi^2=3.58$		$\chi^2=22.93^{***}$	$\chi^2=8.82^{**}$

* p<.05 ** p<.01 ***p<.001에서 유의미

았으나, 노인전용방의 소유여부에 있어서는 대다수의 남성노인은 노인전용방을 갖고 있는데 비해 14% 정도의 여성노인은 전용방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가옥 등(1994)은 다른 사람과 방을 함께 쓰는 상황은 가족내에서 노인의 지위가 낮음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여성노인이 남성노인 보다 가족내 지위가 더 낮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노인전용방이 있는 경우 노인방의 크기나 밝기, 환기상태, 난방 및 활동의 편리성 평가에 있어서 성별에 따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배우자가 있는 노인과 없는 노인 배우자유무에 따라 주택유형과 주택소유여부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 결과는 전국노인을 대상으로 주택소유여부를 조사한 결과 배우자가 없는 경우 주택소유비율이 낮음을 발견한 이가옥 등(1994)과는 다른 결과이

다. 노인방의 소유여부에 있어서는 배우자가 있는 노인보다는 배우자가 없는 노인의 경우 전용방을 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 유무에 따른 노인방의 상태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후기노인과 초기노인 노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 유형은 연령에 따른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후기노인의 경우 아파트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초기노인의 경우는 단독가구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주택소유여부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아 두집단 모두 83-4%의 주택보유율을 보이고 있다. 노인전용방의 소유여부에 있어서는 초기노인의 경우 대다수가 노인전용방을 보유하고 있으나 후기노인의 경우는 87%가 전용방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전용방의 특성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었다.

교육수준이 높은 노인과 낮은 노인 교육수준에 따른 주택형태, 주택소유여부, 노인방 소유여부 및 노

〈표 6〉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노인방 상태

변인	항목	노인방				
		크기	밝기	환기	난방	활동의 편리성
성별	여성	3.30	3.58	3.81	3.91	3.64
	남성	3.27	3.64	3.72	3.87	3.59
	차이검증	t=.31	t=-.50	t=.95	t=.33	t=.51
배우자 유무	유	3.31	3.61	3.71	3.83	3.59
	무	3.26	3.61	3.82	3.93	3.64
	차이검증	t=.43	t=.01	t=-1.16	t=-.90	t=-.51
연령	60세-69세	3.23	3.48	3.67	3.79	3.54
	70세이상	3.32	3.70	3.85	3.96	3.68
	차이검증	t=-.86	t=-1.80	t=-1.95	t=-1.65	t=-1.35
교육수준	고졸이상	3.35	3.87	3.94	3.90	3.80
	중졸	3.26	3.71	3.64	3.87	3.74
	국졸이하	3.27	3.53	3.76	3.89	3.55
	차이검증	F=.16	F=2.47	F=1.50	F=.01	F=1.91
가계 소득수준	상(201만원이상)	3.31	3.78	3.75	4.08	3.83 a
	중(100-200이하)	3.26	3.66	3.76	3.91	3.62 ab
	하(100만원이하)	3.26	3.53	3.78	3.72	3.46 b
	차이검증	F=.05	F=1.13	F=.03	F=3.04	F=3.20*
동거형태	단독가구	3.30	3.60	3.75	3.85	3.44
	비단독가구	3.24	3.60	3.75	3.82	3.66
	차이검증	t=.52	t=.35	t=.03	t=.25	t=-1.79

* p<.05 ** p<.01 ***p<.001에서 유의미

인방의 상태의 차이는 발견되지 않아 노인의 교육수준과 주생활특성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은 노인의 주생활특성이 노인의 교육수준보다는 가장의 사회경제적인 요인에 영향을 받기 때문일 수 있다.

소득수준이 높은 노인과 낮은 노인 가계의 소득수준에 따라 주택소유여부에 차이가 나타났다. 소득수준이 201만원 이상인 노인의 경우 자가보유비율은 100%이다. 그러나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그 비율이 감소하여 가계소득이 100만원이하인 노인의 자가보유비율은 70.1% 정도로 나타났다. 또한 노인전용방의 소유여부에 있어서도 소득수준에 따른 차이가 발견되고 있는데, 소득수준이 중간집단이 노인전용방을 보유하는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이 노인방보유비율이 높은 이유는 이들 집단에서 노인단독가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노인방의 여러 가

지 특성 중 활동하기 편리한 정도에 있어 소득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소득수준이 높은 노인의 노인방이 활동하기 편리한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것은 아마도 소득수준이 높은 가계의 노인의 경우 노인방의 크기가 크거나 사용하기 편리한 가구보유로 인하여 생긴 결과인 것으로 사료된다.

단독가구 노인과 비단독가구 노인 단독가구 노인과 비단독가구노인의 주택유형의 분포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택소유여부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비단독가구의 자가소유비율은 92.5%인데 비하여 단독가구를 형성하고 있는 노인의 자가소유비율은 66.2% 정도이다. 그러나 단독가구의 경우 당연히 모든 노인이 전용방을 보유하고 있었다. 단독가구 여부에 따른 노인방의 상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7>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취업여부, 기계소득 및 용돈

변인	항 목	취업 여부 (%)	가계소득						개인용돈			
			액 수 (원)	근 로 소 득	사 업 및 부 업 소 득	이 자 및 배 당 금	저 축	임 대료	국 가 및 사 회 원 조	자 니 락 친 지 의 도 움	용 든 액 수 (원)	용 돈 출 처 (생활비, 오락비)
성별	여성	3.7	1,527,000	80.4	5.6	4.6	4.6	9.3	2.8	40.7	132,000	15.9
	남성	34.0	1,605,000	80.6	6.4	11.7	10.6	7.4	3.2	40.4	213,000	53.2
배우자 유무	차이검증	$\chi^2 = 31.59^{***}$	t = -3.8	$\chi^2 = 0.0$	$\chi^2 = 0.6$	$\chi^2 = 3.45$	$\chi^2 = 2.64$	$\chi^2 = 2.1$	$\chi^2 = 0.3$	$\chi^2 = 0.0$	t = -3.48^{***}	$\chi^2 = 31.34^{***}$
	유	28.7	1,347,000	72.3	4.3	9.6	9.6	11.7	5.3	46.8	190,000	52.7
연령	무	8.3	1,800,000	87.7	7.4	6.5	5.6	5.6	.9	35.2	152,000	16.7
	차이검증	$\chi^2 = 14.27$	t = -2.24*	$\chi^2 = 7.52^{***}$	$\chi^2 = .89$	$\chi^2 = .66$	$\chi^2 = 1.18$	$\chi^2 = 2.46$	$\chi^2 = 3.37$	$\chi^2 = 2.82$	t = 1.65	$\chi^2 = 29.18^{***}$
교육수준	60세-69세	33.3	1,452,000	75.9	6.9	12.6	4.6	8.0	4.6	37.9	189,000	53.5
	70세이상	6.1	1,672,000	84.1	5.2	4.3	9.6	8.7	1.7	42.6	155,000	18.3
동거형태	차이검증	$\chi^2 = 25.11^{***}$	t = -1.07	$\chi^2 = 2.11$	$\chi^2 = .25$	$\chi^2 = 4.67^*$	$\chi^2 = 1.78$	$\chi^2 = .03$	$\chi^2 = 1.40$	$\chi^2 = .45$	t = 1.42	$\chi^2 = 27.48^{***}$
	고졸이상	19.4	1,960,000	83.9	3.2	22.6	22.6	22.6	6.5	25.8	259,000 a	67.7
가계 소득수준	중졸	29.0	1,731,000	83.9	6.5	9.7	3.2	3.2	3.2	41.9	198,000 ab	41.9
	국졸이하	15.0	1,416,000	79.0	6.4	4.3	5.0	6.4	2.1	43.6	144,000 b	23.7
가계 소득수준	차이검증	$\chi^2 = 3.47$	F = 2.31	$\chi^2 = .65$	$\chi^2 = .48$	$\chi^2 = 11.80^{**}$	$\chi^2 = 12.35^{**}$	$\chi^2 = 9.87^{**}$	$\chi^2 = 1.64$	$\chi^2 = 3.35$	F = 6.97^{**}	$\chi^2 = 23.30^{***}$
	상(201만원이상)	22.2	-	1000	13.9	25.0	8.3	19.4	0	13.9	264,000 a	41.7
동거형태	중(100-200이하)	22.0	-	960	8.0	12.0	6.0	10.0	0	30.0	181,000 b	36.0
	하(100만원이하)	20.8	-	573	3.9	0	4.7	5.2	7.0	61.0	149,000 b	40.8
동거형태	차이검증	$\chi^2 = .04$	-	$\chi^2 = 39.34^{***}$	$\chi^2 = 3.63$	$\chi^2 = 19.02^{***}$	$\chi^2 = 1.22$	$\chi^2 = 5.63$	$\chi^2 = 6.96^*$	$\chi^2 = 26.2^{***}$	F = 5.79^{**}	$\chi^2 = .38$
	단독가구	22.1	689,000	41.2	2.9	2.9	13.2	8.8	7.4	67.6	202,000	39.7
동거형태	비단독가구	15.7	1,556,000	99.3	7.5	10.4	4.5	8.2	.70	26.9	153,000	29.9
	차이검증	$\chi^2 = 1.26$	t = -5.49^{***}	$\chi^2 = 94.05^{***}$	$\chi^2 = 1.65$	$\chi^2 = 3.49$	$\chi^2 = 5.03^*$	$\chi^2 = .02$	$\chi^2 = 6.83^{**}$	$\chi^2 = 31.11^{***}$	t = 1.77	$\chi^2 = 1.98$

*p<.05 **p<.01 ***p<.001에서 유의미

〈표 8〉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지출대비 소득 만족도

변인	항목	지출 대비 소득 만족도				
		기본생활비 만족도	의료비 만족도	여가경비 만족도	의례비 만족도	저축 여유분 만족도
성별	여성	1.87	1.72	2.09	1.98	1.90
	남성	2.02	1.86	2.28	2.19	2.14
	차이검증	t = -1.34	t = -1.12	t = -1.40	t = -1.72	t = -2.04*
배우자 유무	유	1.94	1.81	2.26	2.09	2.04
	무	1.94	1.77	2.11	2.07	1.98
	차이검증	t = .07	t = .32	t = 1.10	t = .09	t = .51
연령	60세-69세	1.91	1.84	2.28	2.08	2.05
	70세이상	1.97	1.75	2.11	2.08	1.98
	차이검증	t = -.50	t = .72	t = 1.30	t = .02	t = .53
교육수준	고졸이상	2.32 a	2.29 a	2.81 a	2.55 a	2.35 a
	중졸	2.19 a	2.10 a	2.42 a	2.52 a	2.29 a
	국졸이하	1.80 b	1.61 b	1.99 b	1.88 b	1.87 b
	차이검증	F = 7.69***	F = 10.72***	F = 12.47***	F = 13.82***	F = 6.56**
가계 소득수준	상(201만원이상)	2.28 a	2.17 a	2.80 a	2.53 a	2.02 a
	중(100-200이하)	2.10 a	1.84 ab	2.16 b	2.10 b	1.56 b
	하(100만원이하)	1.66 b	1.58 b	1.93 b	1.87 b	1.87 b
	차이검증	F = 9.53***	F = 5.83**	F = 12.89***	F = 7.71***	F = 6.24**
동거형태	단독가구	1.91	1.79	2.07	1.94	2.03
	비단독가구	1.96	1.78	2.22	2.14	1.99
	차이검증	t = -.35	t = .08	t = -1.02	t = -1.62	t = .35

* p<.05 ** p<.01 ***p<.001에서 유의미

3. 노인의 경제생활특성

〈표 7〉과 〈표 8〉에서는 인천지역 노인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노인의 취업여부, 가계소득액, 소득원, 개인용돈액, 용돈출처, 지출대비소득만족도에 있어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여성노인과 남성노인 남성노인의 경우 여성노인보다 높은 비율로 직업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가옥 등(1994)과도 일치된 결과이나, 인천지역 노인의 경우 남녀 모두의 취업비율은 전체노인의 취업비율보다는 상당히 낮은 편이다. 가계소득액과 소득원에 있어서 여성노인과 남성노인가계간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용돈액수 및 용돈의 출처에 있어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점이 드러났다. 즉 남성노인의 용돈액수가 여성노인의 용돈액수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용돈의 출처로

는 여성노인은 본인과 배우자 이외에서 획득하는 비율이 높는데 반하여 남성노인의 경우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용돈을 마련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여성노인과 남성노인의 지출대비소득만족도를 알아본 결과는 기본생활비, 의료비, 여행경비 및 의례비만족도에 있어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저축여유분에 대한 만족도에 있어서는 여성노인보다 남성노인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배우자가 있는 노인과 없는 노인 배우자가 있는 노인의 가계가 배우자가 없는 노인의 가계보다 소득액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원에 있어서도 근로소득여부에서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계의 경우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가 더 많았다. 용돈액에 있어 배우자 유무에 따른 차이점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용돈마련방법에 있어 배우자

가 있는 경우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마련하는 비율이 높는데 비해 배우자가 없는 노인의 경우는 자녀 또는 친지로부터 획득하는 비율이 매우 높았다. 직업유무나 지출대비소득만족도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기노인과 초기노인 노인의 연령에 따라 직업유무에 차이가 나타나 초기노인이 후기노인보다 직업을 갖고 있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이가옥 등(1994)의 선행연구와 일관된 결과이다. 그러나 소득액의 차이는 없었다. 한편 소득원으로서 이자 및 배당금을 갖고 있는 비율은 초기노인의 경우 더 높았다. 개인용돈출처에 있어서도 초기노인의 경우 자신이나 배우자가 마련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연령에 따른 지출대비소득만족도의 차이는 보여지지 않았다.

교육수준이 높은 노인과 낮은 노인 노인의 교육수준에 따라서 직업유무나 소득액의 차이는 없었으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이자 및 배당금, 저축, 임대료 소득이 있는 비율이 높아져 교육수준이 높은 노인 가계의 경제적 안정성을 보여주었다.

지출대비소득만족도에서 조사된 모든 비목의 지출에 있어서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 즉 중졸이상의 교육수준을 갖는 노인의 만족도가 국졸이하의 노인들보다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노인의 교육수준에 따른 가계소득의 차이가 보여지고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지출대비소득만족도에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아마도 노인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용돈액수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가경비나 의례비, 저축비 등은 용돈에서 지출하는 항목들이기 때문이다. 또한 교육수준이 높은 노인들은 자신의 용돈을 스스로 또는 배우자에게서 마련하는 비율이 67.7%로서 상당히 높기 때문에 만족도의 차이를 가져올 수도 있다.

소득수준이 높은 노인과 낮은 노인 예상할 수 있듯이 노인이 속해있는 가계의 소득수준은 노인의 경제생활특성을 가장 잘 예측해주는 변인중의 하나이다. 소득원, 용돈액수 및 지출대비소득만족도에 있어 소득수준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간의 차이를 보여주었다. 소득수준이 높은 노인의 경우 근로소

득, 이자 및 배당소득을 갖는 가계의 비율이 높았고, 반면 소득수준이 낮은 노인가계의 경우는 국가원조 및 사회원조, 자녀 및 친지의 도움을 받는 비율이 높았다. 특히 소득수준이 100만원 이하의 노인들의 자녀 및 친지에의 의존도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61.0% 정도 도움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돈액수도 소득수준에 따른 큰 차이를 보여주어 소득이 높은 노인의 용돈액수는 소득이 낮은 계층의 노인보다 10만원 이상 많은 액수를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돈의 출처는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다.

단독가구 노인과 비단독가구 노인 단독가구와 비단독가구의 소득액의 차이는 매우 컸다. 소득원에 있어서도 대부분의 비단독가구가 근로소득이 있는 것에 비해 노인들로만 구성된 단독가구의 경우 그 비율은 낮아지고 있다. 단독가구의 경우 자녀 및 친지에 대한 의존도가 67.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단독가구를 형성하기는 하지만 경제적으로 완전한 자립을 이루고 사는 가구의 비율은 1/3정도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비율은 충청북도 단독노인가구를 조사한 결과 자녀보조를 받는 비율로 나타난 68.1% 정도와 매우 비슷한 수준이다(심영 등, 1996). 또한 단독가구노인은 비단독가구노인보다 저축소득과 국가 및 사회원조를 받는 비율이 높은 편이었다.

단독가구노인과 비단독가구노인간의 소득차가 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쓰고 있는 용돈액이나 출처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았다. 또한 단독가구의 경우 가구원수가 1인 또는 2인일 것이기 때문에 소득차이가 소득만족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 지출대비소득만족도는 전비목에 걸쳐 단독가구노인과 비단독가구노인간의 차이는 발견되지 않는다. 이러한 현상은 또한 어느정도의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노인단독가구를 형성하였기 때문일 수도 있다.

4. 노인의 가족관계특성

〈표 9〉에서는 인천지역 노인의 가족관계특성을 부부관계, 성인자녀관계 및 손자녀관계로 나누고 이

<표 9>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가족관계 특성

변인	항목	부부관계 특성				성인지녀관계 특성				손자녀관계 특성	
		결혼생활 만족도	존중정도	동료감	여가생활 공유정도	애정정도	의존정도	외관적 유대관계	갈등정도	애정정도	역할수행 정도
성별	여성	2.68	2.92	2.92	2.65	3.67	3.43	3.04	2.58	3.62	2.75
	남성	3.80	3.87	3.70	3.16	3.78	3.15	2.82	2.53	3.72	2.81
	차이검증	t = -5.73***	t = -4.76***	t = -4.02***	t = -2.93***	t = -1.12	t = 2.66**	t = 1.96	t = 4.1	t = -7.1	t = -5.2
배우자 유무	유	-	-	-	-	3.83	3.24	2.84	2.55	3.82	2.90
	무	-	-	-	-	3.63	3.34	3.02	2.56	3.54	2.68
	차이검증	-	-	-	-	t = 2.10*	t = -9.0	t = -1.60	t = -0.9	t = 2.15*	t = 2.00*
연령	60세-69세	3.46	3.51	3.39	2.84	3.77	3.15	2.91	2.52	3.82	3.09
	70세 이상	3.60	3.85	3.68	3.35	3.69	3.40	2.95	2.58	3.56	2.58
	차이검증	t = -6.4	t = -1.79	t = -1.56	t = -2.70***	t = 8.0	t = -2.31*	t = -.36	t = -5.0	t = 2.04*	t = 4.57**
교육수준	고졸이상	3.77 b	4.02 b	3.93 b	3.15	4.02 a	3.13	3.09	2.38	3.66	2.86
	중졸	3.84 b	3.75 ab	3.63 ab	3.20	3.71 ab	3.19	2.98	2.51	3.58	3.06
	국졸이하	3.29 a	3.44 a	3.24 a	2.92	3.66 b	3.36	2.89	2.60	3.62	2.70
	차이검증	F = 3.52*	F = 3.50*	F = 5.87**	F = .86	F = 3.95*	F = 1.46	F = .84	F = 9.0	F = 1.42	F = 2.68
가계 소득수준	상(201만원이상)	3.61	3.78	3.63	2.90	3.80	3.24	3.07 a	2.56	3.77	2.82
	중(100-200이하)	3.71	3.64	3.51	2.78	3.63	3.29	3.10 a	2.58	3.65	2.90
	하(100만원이하)	3.42	3.58	3.42	3.13	3.74	3.40	2.74 b	2.66	3.67	2.71
	차이검증	F = .65	F = .31	F = .32	F = 1.01	F = .69	F = .64	F = 4.06*	F = 2.3	F = .19	F = 1.02
동거형태	단독가구	3.65	3.64	3.70	3.14	3.61	3.17	2.60	2.51	2.93	2.14
	비단독가구	3.37	3.50	3.25	2.90	3.71	3.31	3.06	2.54	3.28	2.51
	차이검증	t = 1.43	t = .70	t = 2.51*	t = 1.25	t = -.93	t = -1.16	t = -3.80***	t = 2.3	t = -1.60	t = -2.14*

*p<.05 **p<.01 ***p<.001에서 유의미

들 각자의 특성이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여성노인과 남성노인 부부관계특성에서 여성노인과 남성노인간의 차이가 크게 보여지고 있다. 여성노인의 경우 남성노인보다 결혼만족도가 낮고 존중감 및 동료감도 낮으며 배우자와의 여가생활공유정도도 낮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성인자녀관계에 있어서는 애정정도, 객관적관계의 유지정도 및 갈등정도에 있어 남녀노인의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남성노인보다 여성노인의 성인자녀에 대한 의존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보통 노부모와 성인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갈등관계의 경우 여성노인보다 남성노인이 지각하는 갈등이 높다는 결과(최정혜, 1992)와 별다른 차이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결과(송대현·윤가현, 1989)가 있어 일관되지 않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갈등의 경우 남녀노인간에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손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 노인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이에 관한 선행연구는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지 않고 있는데, 본 연구의 결과는 손자녀의 훈육이나 손자녀를 돌보아주는데 대한 책임감에 있어서 성별의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는 강주령(1990)과 일치된 결과이다.

배우자가 있는 노인과 없는 노인 배우자가 있는 노인이 배우자가 없는 노인보다 성인자녀와의 애정정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손자녀와의 애정정도와 역할수행정도에 있어서도 배우자가 있는 노인의 점수가 높게 나타나서 배우자가 없는 노인의 가족관계의 문제점을 시사해주고 있다. 같은 변인으로 연구한 선행연구가 없어서 구체적인 결과를 비교할 수는 없지만 배우자가 있는 노인이 배우자가 없는 노인보다 생활에 만족하고, 사기나 심리적 정응력이 높다(김명자, 1982)는 연구결과와 일치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후기노인과 초기노인 노인의 연령에 따라서 부부간의 여가생활공유정도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노인보다는 후기노인이 오히려 부부간의 여가생활을 더욱 같이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나.

후기노인의 경우 성인자녀에 대한 의존도가 더 높게 나타났으나, 성인자녀와의 애정, 객관적 유대관계의 유지, 갈등정도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손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초기노인의 경우 애정정도 및 역할수행정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교육수준이 높은 노인과 낮은 노인 노인의 교육수준에 따라서 결혼생활만족도, 존중정도, 동료감에 차이를 보여주었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결혼생활만족도가 높았으며 존중감과 동료감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자녀와의 관계에서도 교육수준이 높은 노인의 경우 교육수준이 낮은 노인보다 애정정도를 더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인자녀에 대한 의존정도나 객관적 유대관계의 유지 및 갈등정도, 손자녀관계특성에 있어서는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소득수준이 높은 노인과 낮은 노인 노인이 속해있는 가계의 소득수준에 따라 부부관계나 손자녀관계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성인자녀와의 객관적 유대관계의 유지정도에 차이가 나타나서 소득수준이 높은 노인의 객관적 유대관계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단독가구 노인과 비단독가구 노인 단독가구 노인과 비단독가구 노인간의 결혼생활만족도나 존중정도, 여가생활공유정도의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부부간의 동료감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단독가구의 노인부부는 비단독가구의 노인부부보다 동료감을 더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단독가구보다는 비단독가구 노인의 경우 성인자녀와의 객관적 유대관계 유지 정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흔히 기혼자녀와 동거하는 경우보다 별거하는 경우 자녀와의 갈등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박재간, 1984, 이가옥, 1989, 김태현, 1991), 본 연구에서는 단독가구 노인과 비단독가구 노인의 자녀와의 갈등정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손자녀관계에 있어 비단독가구 노인의 경우 단독가구 노인보다 손자녀에 대한 역할 수행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V. 요약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인천지역 노인의 건강 및 식생활 특성, 주생활특성, 경제생활특성 및 가족관계특성이 사회인구학적인 변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인천지역 노인 202명을 조사한 자료에 의거하여 나타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 결과 서로 다른 사회인구학적인 특성을 갖는 노인들이 비슷한 생활실태를 갖고 있는 측면도 많았으나, 차이가 나타난 항목의 특징을 살펴보면 남성노인보다 여성노인이, 배우자가 있는 노인보다는 없는 노인이, 연령이 젊은 초기노인보다는 후기 노인이, 소득수준이 높은 노인보다는 낮은 노인이, 교육수준이 높은 노인보다는 낮은 노인의 생활실태가 일관성있게 더 열악한 경향이 나타나서 생활의 유기적인 측면을 보여주었다.

첫째, 남성노인과 비교할 때, 여성노인은 건강을 위해 운동을 덜 하는 편이며 육류 및 가금류의 섭취수준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노인은 전 용방을 덜 소유하고 있으며 취업비율도 낮았으며 용돈액수도 작고 용돈을 자신이나 배우자가 마련하는 비율도 낮았다. 저축에 대한 여유분이 부족함을 더 느끼고 있으며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만족도, 존중정도, 동료감, 여가생활 공유정도도 낮은 편이었다. 그리고 성인자녀에 대한 의존정도는 높은 편이었다.

둘째, 배우자가 있는 노인에 비하여 배우자가 없는 노인은 거동이 더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었으며, 운동을 덜하고 아침식사를 거르는 비율도 높았다. 이들은 육류 및 가금류의 섭취수준이 더 낮았으며 전용방을 소유하고 있는 비율도 더 낮았다. 가계소득수준은 더 높았으나 용돈액수는 더 높은 것은 아니었으며 취업률은 더 낮은 편이었다. 성인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 애정정도가 낮고 손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애정정도나 역할수행정도가 더 낮게 나타났다.

셋째, 연령이 낮은 노인보다 연령이 높은 노인은 거동이 더 불편하였고, 정기검진을 덜 받으며 운동도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전용방을 갖고 있

는 비율도 더 낮으며 취업률도 매우 낮고, 용돈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부부간의 여가생활공유정도는 더 높게 나타났으나 손자녀와의 관계에 있어 애정정도와 역할수행정도는 더 낮게 나타나는 편이었다.

넷째, 교육수준이 높은 노인에 비하여 교육수준이 낮은 노인은 정기검진을 덜 받고 운동도 덜 하며 아침식사를 거르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육류 및 가금류, 과일, 우유 및 유제품의 섭취정도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에 따라 주생활에 있어서 차이는 나타나고 있지 않으나 경제생활에서는 큰 차이가 보였다. 소득원의 차이가 보여졌으며 교육수준이 낮은 노인의 용돈액수가 더 작았으며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이들은 지출에 대비하여 소득이 부족함을 더욱 많이 느끼고 있었다.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만족도, 존중정도, 동료감을 덜 느끼고 있었으며 성인자녀에 대한 애정정도도 낮은 편이었다.

다섯째, 소득수준이 높은 노인에 비하여 낮은 노인은 규칙적인 식사에 신경을 덜 쓰고, 생선 및 조개류의 섭취정도가 더 낮았다. 주택을 소유하는 비율이 낮았으며, 이자 및 근로소득원을 갖고 있는 비율은 낮은 반면 친지나 사회의 원조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았다. 용돈의 액수도 작았으며 지출대비소득 만족도도 낮았다. 성인자녀와의 객관적 유대관계를 유지하는 정도도 낮게 나타났다.

한편, 단독가구 노인과 비단독가구 노인의 생활특성은 일관성있는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단독가구 노인과 비단독가구 노인간의 식생활 특성은 차이가 없었다. 단독가구 노인의 경우 자가보유비율이 낮았고, 소득원 및 소득액에 차이가 있었으나 용돈액수의 차이는 없었고 지출대비 소득만족도에 있어서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부부간의 동료감은 더 느끼나 성인자녀와의 객관적 유대관계와 손자녀에 대한 역할수행정도 수준은 낮게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결과에 입각하여 볼 때, 인천시 노인의 생활특성은 사회인구학적인 변인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 적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서론 부분에서 살펴본 바대로 인천시의 노인복지사

업은 가계의 경제적인 측면을 반영한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특별사업을 제외하고, 많은 사업비를 지출하고 있는 일반노인을 위한 복지사업을 수행하면서 노인의 사회경제적인 특성을 반영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지는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인복지사업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 실행될 때 보다 효과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본 연구의 결과에서 나타난 정보를 활용하여 특정 노인집단에 대한 정책 및 프로그램의 우선순위를 매긴다. 예를 들면, 현재 인천시 여성노인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알맞은 운동을 유도하는 사회복지 정책, 부업알선 및 가족관계개선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실시가 필요하다. 또한 단독가구와 비단독가구 노인을 구분하여 단독가구의 생활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책은 소득의 안정성보장이든가 자가주택의 확보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현상으로서 여성노인과 단독가구노인의 증가율이 다른 유형의 노인증가율보다 더 높다면 이들을 겨냥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의 실시는 더욱 중요하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를 이용하여 기존의 노인정책 및 프로그램을 재편하여 노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차별화시킴으로써, 필요가 높은 집단을 겨냥하여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오도록 한다. 예를 들면, 인천시 노인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영양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은 교육수준이 낮은 노인이 우선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경제생활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 정책은 소득수준이 낮고 교육수준이 낮은 노인을 우선적으로 겨냥해야 할 것이다. 가족관계에서 만족감을 높일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의 우선적인 대상은 교육수준이 낮은 여성노인이 될 수 있다.

■ 참고문헌

- 1) 강남이(1986). 서울시내 거주 노인의 영양섭취실태 및 식생활태도 조사연구-은퇴한 노인을 중심으로-. 한국영양학회지, 19(1), 52-65.
- 2) 강주령(1990). 노년기 적응에 관한 연구: 가족관계를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3) 고철기, 박능후, 김성희, 이경은(1992). 노령계층의 소득보장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4) 김명자(1982).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0(3), 45-54.
- 5) 김태현(1991). 고령화사회와 가족의 갈등. 사회복지, 가을호, 147-165.
- 6) 김혜경·윤진숙(1989). 도시에 거주하는 여자노인의 영양상태와 건강상태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영양학회지, 27(3), 175-184.
- 7) 문숙재·김순미·김정연(1996). 노인가계와 비노인가계의 재정상태 비교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3), 223-235.
- 8) 박경란·제미경·오찬옥(1995). 단독가구 여자노인의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 연구공모과제.
- 9) 박재간(1984). 노후보장과 사적부양기능. 한국노년학, 제 4집.
- 10) 배경미(1988). 조부모 역할에 관한 기초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1) 상형중(1992). 고령자를 위한 복지시설 및 주택개선에 관한 연구. 서울: 삼우종합건축사무소.
- 12) 서병숙(1988). 노후적응에 관한 연구: 생활만족도 및 가족의 교류도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13) 서정희·민현선(1992). 노인소비자의 소비자능력과 관련변수에 관한 연구. 울산대학교 연구논문집, 2(1), 29-45.
- 14) 송대현·윤가현(1989). 노년기의 고독감: 한국노인이 느끼는 고독의 특성. 한국노년학회지, 9, 64-78.
- 15) 심영·김대년·조명희·조영희(1996). 노인복지 측면에서 본 충청북도 노인단독가구의 생활환경 분석 및 개선방안 - 경제 및 주거환경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3), 1-19.
- 16) 이가옥(1989). 가족구조의 변화와 노인부양문제: 노인복지정책의 방향설정을 위한 세미나. 한국연구보건연구소.
- 17) 이가옥·서미경·고경환·박종돈(1994). 노인생

- 활실태 분석 및 정책문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18) 이경희(1993). 노인소비자 기능과 소비자만족에 관한 연구: 서울시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9) 이민표·박명희(1994). 노인소비자의 소비행동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20) 이윤희·이건순(1995). 노인의 영양지식과 식행동, 영양태도 및 식품기호도에 관한 조사연구 - 서울시 가정 거주노인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3(6), 213-224.
 - 21) 이현옥·염초애·장명숙(1986). 노인의 식이섭취 실태와 건강상태에 관한 연구 -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영양식량학회지, 15(4), 72-80.
 - 22) 인천광역시(1997). 1997년도 주요업무보고(사회복지분야). 내부자료.
 - 23) 인천의 제21추진협의회 복지분과(1997). 내부자료.
 - 24) 장상희·조정문(1985). 부산시 노인들의 생활실태 및 생활만족도. 부산지역사회연구 제2집. 부산대 사회조사연구소.
 - 25) 장선주(1989). 노부모와 성인자녀간의 생활감정 및 교류: 아들동거노인과 딸동거노인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6) 장재호(1992). 인체치수를 고려한 노인 주거의 실내공간계획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7) 조명희·조영희·심영·김대년(1997). 노인복지 측면에서 본 충청북도지역 노인단독가구의 생활환경 분석 및 개선방향 -사회적 관계 및 가사노동실태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1), 173-190
 - 28) 조영숙·임현숙(1991). 중소지역 노인의 식습관 및 건강 상태에 관한 연구. 한국영양식량학회지, 20(4), 346-353.
 - 29) 천진희(1992). 고령자의 실내환경에 관한 연구. 대유공업전문대학 논문집, 제14권.
 - 30) 최정혜(1992). 노부모가 지각하는 성인자녀와의 결속도 및 갈등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31) 허병이(1991). 노인의 주거현황과 거주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인천전문대학논문집, 제15권.
 - 32) 허영혜(1989). 노인의 영양섭취와 환경요인에 관한 연구.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3) 황준호(1990). 한국노인의 생활실태 조사연구-대전시 노인을 중심으로-. 한남대 지역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